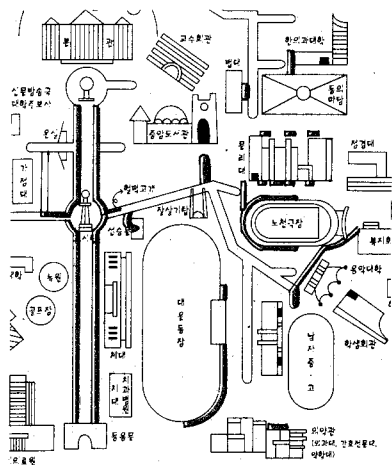




▲이번 불법주차 단속지역, 만약 이를 어기고 불법주차할 경우 사무처와 인복위에서 제작한 스티커를 운전석 유리에 부착한다. 앞으로 이 지역에 별도의 색선을 그어 표시할 예정이다.

주차 단속 홍보부족으로 부작용

관계부처 안일행정 및 구성원 의식 결여 가장 큰 원인

지난 8일부터 학생인권복지위원회(인복위)를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서울캠퍼스 '학내불법주차 단속'이 학교 관계부처의 느림보행정과 홍보부족으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물의를 빚고 있다.

인복위는 지난 8월말 사무처를 상대로 학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데다가 현재 학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6명의 유도요원으로 주차질서 확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학내 불법주차 단속 시행 계획을 제출했다. 동시에 단

속사항과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무처 측은 단속 시행 3일전인 지난 5일에 홍보문구를 제작한 데다가 시행 당일에 임박해서 홍보물을 배포한 탓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된 차량주들로부터의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지난 95학년도까지 시행해왔던 불법주차 단속은 지난해 주차유료화가 학내에 도입되면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데 학내 주차라인이 4백34개에

그치는 데에 비해 정기관(리모콘)을 소지한 출입자의 수만 1천 5백명에 이르니 불법주차가 존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또한 건물이 문리대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보니 밀집지역의 불법주차 정도는 더 극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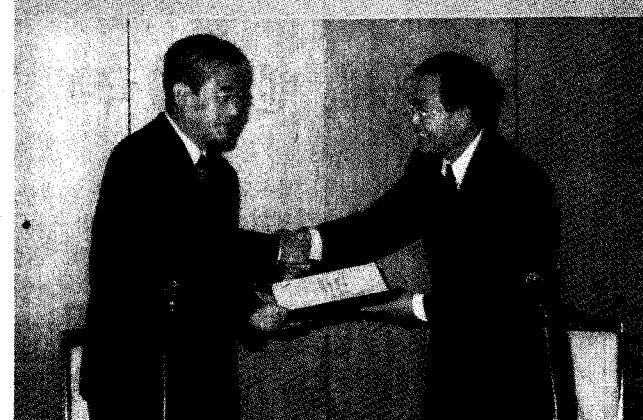
이에 대해 심재호(지리4) 인복위원장은 "학내 구성원들의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조금 건넌다 사내나 가정대 주변을 비롯한 비밀집 구역에 주차를 하면 지금과 같

은 주차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측의 대안 마련의 시급함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번 시행으로 빚어진 부작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학교측은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것 이외에 불법주차 단속에 관한 홍보활동을 재개해 학내 주차질서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취재부)

이건수 회장 발전



▲지난 18일 가진 장학기금 전달식 중 이건수 동문이 조경원 총장에게 장학기금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건수 동문 3억 기증

"모교 사랑의 표현일 뿐..."

현재 동아일렉(주)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건수(정외 64년 졸) 동문이 지난 18일 우리학교에 3억원을 기증했다.

이날 11시 서울캠퍼스 본관 소회의실에서 거행된 기금 전달식에서 이 동문은 "내가 다닌 나의 모교를 능력껏 돕는 것 뿐"이라며 "후배들을 훌륭한 세계인으로 키우는데 이 기금이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약 3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는 이 회장은 지난 4월 29일 교무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99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10억원을 기증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지면안내

2. 시론-미디어선거, 불공정보도 경쟁인가
3. 2학기 신입교원 명단
5.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가능한가
8. PC통신과 소비문화
9. 경희의 이름으로-이건수 동아 일렉 회장
10. 사회기획-정권교체 과연 필요한가
11. 한마을 봉사단 이웃돕기 성금 전달
12. 생활·문화기획-하숙·자취방 탐방

경희 그 한주의 역사

1978. 9.22 당시 3학년 학생들의 야외행군이 있는 날. 학교부터 불암산까지 계속된 행군의 집결시간은 오전 7시30분. 결석할 경우 교원학점은 'F'

1983. 9.22 체육과학관의 개관식. 당초 개교기념일인 5월 18일에 완공일을 맞추려고 했으나 일기문제로 이날 개관

교내 단신

오는 24일 모의토의시험 서울캠퍼스 취업정보실은 오는 24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30분동안 '모의 토의시험'을 실시한다. 우리학교 학생 1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이번 시험의 접수는 오는 24일 오전까지 취업정보실에서 받으며 접수비는 1천원이다. 시험장소는 별대 101 강의실이다.

법대 민사 모의재판 법대 민사재판회는 오는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제30회 민사모의재판'을 시행한다. '골프장 건설과 환경 파괴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회 회원들간의 토론과 가상적인 판결을 내리게 될 이번 재판의 개정시간은 오후 3시이다.

의상학과 졸업작품 발표 의상학과는 졸업작품 발표회 '낭향'을 오는 26일 선보인다. 4학년 학생들의 작품을 패션쇼 형식으로 발표하게 될 이 행사는 오후 3시 크라운관에서 시작된다.

제27회 도예학과 97 졸업작품전 제27회 도예학과 97 졸업작품전이 24일 오후 5시에 개최된다.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동안 인사동 덕원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작품전에는 조형반과 산업반 33명의 졸업논문은 대산에 출품된 작품이 전시된다.

제1회 조형실기대전 '제1회 조형실기대전'이 오는 27일 오전 9시 수원캠퍼스 산업대학관에서 열린다. 국내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자격이 부여되는 이번 실기대전의 응시부문은 도예전공 및 산업디자인전공이다. 실기교사 제한 시간은 각 전공별 3시간씩이며 도예 전공은 주어진 도면을 보고 모델 성형 및 표면장식이나 점토조형 및 표면장식 등 택일하고 산업 디자인 전공은 주어진 주제에 의한 창작스케치를 하게된다.

사 고

제 45기 수습기자 모집

우리학교 총장님과 나란히 앉아 이리저리 이야기를 나누어 보셨습니까? 거러잡지에 나가 전경들 사이에 서서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나온 글이 신문에 나와 2만 5천부가 인쇄되는 광경을 보셨습니까? 내가 쓴 글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곳, 바로 대학주보입니다.

1. 모집대상: 우리학교 1학년(97학번)
2. 모집기간: 9월-9월 23일 까지, 수원-9월 24일 까지
3. 전형방법: 간단한 필기와 면접 마다 당일 오후 5시 30분과 캠퍼스 편집실에서

도매비장터 이용안내

대학주보사에선 학우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벼룩시장인 '도매비장터'를 마련했습니다. 다 배운 교재, 컴퓨터 등 사고싶은 것, 팔고싶은 것이 있으면 학내 곳곳에 마련된 도매비장터 대자보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 일요일 대학주보 정보면에 그 내용을 실어드립니다.

열린소리함 비지

학우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대학주보사에선 학내 대학주보 감판대에 '열린소리함'을 설치하였습니다. 학교생활중에 느끼는 여러 불편사항이나 대학주보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열린소리함에 투고하십시오. 언제나 학우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좁기만한 취업문 창업으로 돌파한다

인력 적더라도 창조적
기술만 있으면 성장 가능

'대란' 요즘 취업난을 일컬어 사용되는 단어이다.

실제로 우리학교의 경우만 살펴봐도 올해 대기업이 의뢰해온 공문의 수가 작년의 반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취업난의 심각함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김종규 취업정보실장은 "이와 같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갈 길을 개척하고 그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며 그동안 학교가 배려해 온 갖가지 정책들도 이번과 같은 취업난을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자신의 갈 길을 스스로 개척하길만 말하지 쉬운 일만은 아니다. 사실 요즘 봄을 이루고 있는 벤처기업의 경우만 보아도 성공적인 경우 만점이나 사업을 추진해 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허다하다.

이에 벤처기업, 다시 말해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내 연구소가 수원캠퍼스 공과대학 내에 설립되었다. 이를통해 '경희 창업연구회'(지도교수: 김한원 경영 교수)가 바로 그 곳이다.

대학생들의 창업열기를 확산하여대학가에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 재학 중 창업에 관한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조직적인 창업준비를 하고자 발족된 이 동아리는 지난 96년 10월 정회원 8명으로 결성하게 되었다.

이 연구회의 회장인 김영주(전자전과 석사4기)군은 "우리 연구회의 경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수동아리로 선정되어 1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타대학, 특히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부측의 지원이 점차 늘고 있다"며 "지방 소재 창업기업들이 지역내 대학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의 수는 약 5백개에 이르는데 그 중 40%에 달하는 기업이 1992년도 이후 설립되었다. 사업분야는 전기전자 계열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계, 정보처리 분야가 그 다음으로 많다.

또한 창업자의 창업 당시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가장 많아 대기업에 비해 소유주의 연령이 매우 낮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벤처기업들이 기업을 경영



▲30대를 중심으로 성행하던 창업붐이 점차 그 중심세력을 대학생 층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요즘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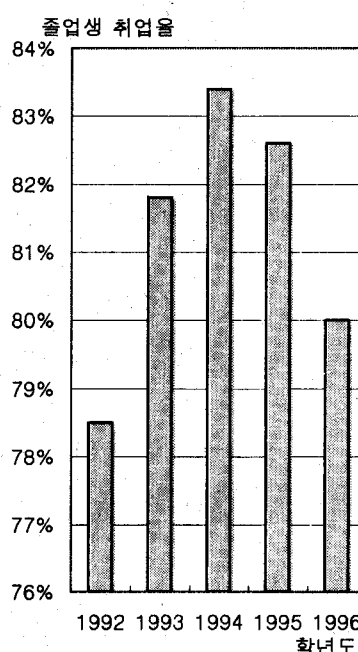
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뭐니뭐니해도 '돈'의 조달이다. 그 외에 인력조달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많지만 창조적 기술이 확보된 기업이라면 인력이 적어도 기업 유지가 가능하다.현재 존재하는 벤처기업의 성장만 살펴봐도 창조적 기술이 뛰어난 기업일수록 고용인원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다.

대학가에 넓게 확산된 창업붐은 이제 황산에서 그치지 않고 실연에까지

다다랐고 그 실적은 경제난국의 위기 속에서도 연평균 27%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이기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앞으로는 벤처기업 간의 경쟁만이 남아있다. 대기업의 입맛에 맞추어 지는 것보다 새로운 기술로 나만의 기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 처음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남이 기자)



졸업생 취업률 '하락세'

근 5년간 우리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율을 나타낸 위 그래프를 보면 94학년도를 기점으로 취업률의 하락이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업률의 하락세와 같이 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율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취업난의 해결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벤처기업 창업의 길을 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주보 뉴스서비스

천안: GO KHU 31
하이텔: GO KHU 10
유니텔: GO KHU
인터넷: <http://news.kyunghee.ac.kr>

도박성 수강신청(?)

교시탐

개강이 었는데 벌써 9월 말이다. 수강 신청이 뭐다해서 2주일이 정성없이 지나간 후 추측 연휴까지 겹쳐, 약 3주간의 시간이 공중에 떠버리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9월 한달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그냥 보내게 되었다.

수강신청 정정은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강 신청 이전에 강의에 대한 사전지식이 충분했다면 굳이 학기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 강의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95년도에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수업과에서 약 1천8백여개 강좌의 교수나 강사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부탁해 제작했다는 이 책자는 제작과정에서의 시간적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과 수강신청 후 배우로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95년 이후에는 이마저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에 대해 이종희 수업과장은 "기말고사 2주전에 실시하는 새로운 수강신청제도에서의 강의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재 학내에 배치되어 있는 '취업정보 안내 단말기'와 '천리안'을 통해 2학기 수강신청전에 강의계획을 입력하여,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강신청기간인 지난 2주일 동안 학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강의계획서가 배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강신청이 행해졌기 때문임을 감안한다면 꼭 책자가 아니더라도 수강신청 전에 강의계획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16주 학사일정 중에 수강신청 정정으로 2주일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고 학생들도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수강신청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2학기때 실시한 예비수강신청이 홍보부족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로 제정표를 거두지 못한 기억을 떠올린다면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 개개인의 지적성장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강신청을 수업시간과 수업료 교수 이름만으로 결정해야 한다면 도박과 다를 바가 없다. (최현일 기자)

수원 노선유치 전망 밝아

학교, 2차 전의서 제출 회신 대기중

학교는 수도권순환철도, 용인경량전철 노선 변경과 관련 2차 전의서를 지난 19일 철도청, 건설교통부, 경기도청에 제출. 학교와 노선 유치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전망이다.

수도권순환철도는 기획실이 수도권광역전철 2단계 계획과정에서 '본교 통과 및 정차, 경희대역 개설'을 제안한 바 있으나 사업수익성 미비, 교육환경문제의 이유로 무산되었다.

이에 학교는 지난 12월 수도권 연결, 수익성, 지역사회봉사 기여'를 골자로 2차 전의서를 건설교통부와 철도청, 경기도청에 제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또한 용인경량전철 노선 변경은 '민속촌, 수원과의 연계계획 검토 후 2차

사업에 포함한다'는 용인시에 발표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 조병준 과장은 "학교주변 교통여건의 개선은 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적 역할수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건"이라며 "학교측과 많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조정실은 건설·토목 분야 교수진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사업관리팀을 발족한 예정이다.

캠퍼스 유적 연구

우리학교 중앙박물관(관장:신용철

외국잡지 LAN망 통해 검색

기사내용, 저자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중앙도서관 내에 소장하고 있는 외국잡지 목록 및 저자, 기사내용 등을 교내 LAN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이용안내'와 '외국학술지'를 검색해 선택하면 되고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외국학술지 검색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잡지의 기사내용부터 저자까지 제공받

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리하다. 이는 기존에 외국잡지가 도착하면 목차를 복사해 각 학과 및 교수들에게 직접 배부했던 것에 비해 내용까지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간편해진 것이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검색이 불가능한 외국학술지는 종전대로 목차를 복사해 각 학과 및 교수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